“만당 스님 오셨나”…불갑사 찾은 ‘만당새’

대웅전 앞 괘불대에
둥지 튼 노랑할미새
“생명 지키는 마음
또한 부처님 자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갑사 대웅전 앞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노랑할미새의 새끼가 입을 벌리고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다. 불갑사 대중은 이 특별한 인연을 ‘만당새’라 부르며 보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광 불갑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사부대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최근 대웅전 앞마당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노랑할미새 한 쌍과 새끼들을 보호하며, 참배객들에게 조용한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 불갑사 대중은 이 작은 새를 ‘만당새’라 부르며 특별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갑사에 따르면 노랑할미새는 지난 4월 20일경 경내를 찾아왔으며, 5월 1일경 대웅전 앞 좌측 괘불대 구멍 안에 둥지를 틀고 알 다섯 개를 낳았다. 현재는 일부 알이 부화해 부모새 두 마리가 번갈아 먹이를 물어 나르며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이번 둥지는 일반적인 노랑할미새의 서식 환경과는 달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노랑할미새는 물가 주변 바위틈 등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은데, 수많은 참배객이 오가는 사찰 중심 공간인 괘불대에 둥지를 튼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불갑사는 현재 새들의 안정을 위해 괘불대 주변에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참배객들의 접근을 제한하며 보호에 나서고 있다.

불갑사가 공개한 안내문에는 “부처님 오시는 길, 가장 작고 귀한 손님이 머물고 있다”며 “이곳 대웅전 앞마당 당간지주 구멍 속에 노랑할미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소중한 알을 품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평생 불갑사 중창과 포교에 헌신하시다 지난해 원적에 드신 만당 스님의 지극한 도량 사랑이 이 작은 새의 날갯짓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머물게 한다”며 “모습은 달라도 생명의 무게는 같고, 이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라고 전했다.

주지 덕상 스님 역시 이번 일을 남다른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님은 “원래 저 새는 물가 바위틈 등에 알을 낳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괘불대 구멍에 둥지를 튼 것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부처님오신날과 시기가 맞물린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만당 스님께서 상좌들과 신도들을 걱정하며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절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당새’라고 부르게 됐다”며 “단순히 새 한 마리로 보기보다, 도량을 아끼셨던 만당 스님의 마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 상좌로서 더욱 뜻깊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불갑사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에도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양사 숙원 오백나한전 복원 ‘첫 걸음’

5월 4일 경내서 상량법회
무공 스님 “내년 여름 회향”



백양사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백나한전 복원불사가 마침내 상량에 이르렀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5월 4일 경내 천진암 초입에 새롭게 조성 중인 오백나한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무공 스님과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소임자 스님들, 중앙종회의원 덕유 스님,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번에 상량한 오백나한전은 정면 5칸·측면 3칸 규모의 61평 전통 목조건축으로, 맞배지붕 형식으로 조성된다.

백양사는 향후 오백나한상을 한 분 한 분 친견할 수 있는 내부 배치를 통해 나한신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백나한전 복원이 백양사의 오랜 염원이었음을 강조했다. 무공 스님은 “오백나한전은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타 없어진 지 8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며 “백양사의 몇 가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오백나한전 복원불사를 제 손으로 상량하게 돼 참으로 고맙고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상량이 끝나면 내부 시설과 오백나한 성상 조성을 마무리해 내년 여름까지 회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전국 사찰 · 단체, 봉축행사 잇달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봉축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동해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봉축탑 점등 법요식.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히는 봉축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5월 2일 안동 시내 일원에서 봉축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다.

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이 밝혀진 위대한 사건”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법요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제등행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연등을 손에 들고 웅부공원을 출발해 안동 시내 일원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자원 스님)가 주최하고 의성불교신도연합회가 주관, 의성군이 후원한 점등법회가 4월 29일 의성읍 북원로터리에서 열렸다. 지난해 의성 산불로 행사가 열리지 못해 2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사부대중과 지역민들이 대거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장 자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의성군민과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는 4월 30일 정읍시 연지아트홀 로터리 광장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포용하고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 경승회(회장 송월 스님·성흥사 회주)는 5월 6일 군산경찰서 강당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경승회장 송월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사바세계에 오셨듯, 경찰관들 또한 모든 시민이 나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 임정민 군산경찰서장은 경찰 행정 발전과 지역 사회 안녕을 위해 헌신해 온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과 혜윤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동해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담 스님)가 주최하고 동해시불교신도연합회(회장 임승규)가 주관한 ‘동해시 봉축탑 점등 법요식’이 5월 2일 천곡동 동해탑 사거리에서 봉행됐다.

연합회장 정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90일 동안 정성껏 봉축탑을 장엄해 주신 분들과 십시일반 정재를 모아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점등식은 사암련과 신도들이 함께 이룬 원력의 결실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양양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념 스님)는 4월 30일 낙산사 주차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군민 안녕을 기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말, 행동을 늘 돌아보며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 고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현 스님)는 5월 2일 간성읍 달홀공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대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오늘 밝힌 봉축 등의 빛이 증오와 대립을 녹이고, 평화의 연꽃을 피워내는 인연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천안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5월 2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봉축등은 기존 충무병원 인근에서 천안 삼거리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불을 밝혔다.

연합회장 도언 스님은 “오늘 밝힌 등불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봉 스님)와 불교시설복지관총연합회(회장 도봉 스님)는 4월 3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옆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성남에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주제로 ‘성남 연등회’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도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성남 연등회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봉축문화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 김선행 · 유재상 · 이동격 지사장

법주사, 부처님 가사불사 회향

삼존대불 가사 공양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가 5월 1일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가사불사를 회향법회를 열고 새롭게 제작한 가사를 삼존불에 공양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창건주 의신 조사의 가사를 고증해 재현해 의미를 더했다. 증명 법사로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와 회주 소암 도공 대종사, 율주 목은 무상 대종사가 법석에 올랐고, 점안의식 집전은 국가무형유산 불복장작법 이수자와 전승자들이 맡았다.

재현한 의신 조사의 가사를 수하고 법상에 오른 조실 지명 스님은 “가사는 탐진치를 없애고 수행과 포교를 상징하는 법의”라며 “논두렁 밭두렁 모양의 가사는 복밭[福田]의 옷으로, 걸치는 자체가 수행이자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를 공양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오늘 뿌린 공덕의 씨앗은 무량한 열매로 이어져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회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는 복원된 가사를 성보박물관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이번 가사불사를 계기로 전통 가사 제작과 공양 의식을 기록 보관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용인 호국선봉사 수계법회 봉행

5월 3일 자광 스님 계사로



호국불교의 요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가 5월 3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가족 및 장병 100여 명이 동참해 삼귀의와 오계 수지 의식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서원했다.

수계자들은 합장한 채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했으며, 계사인 자광 스님은 계율의 의미와 수행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법문을 설했다. 자광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은 수행의 근본이자 삶의 기준”이라며 “계를 지키는 삶이 곧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계법회에는 최근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상렬 대장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군 지휘관이 직접 계를 수지한 것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군 신행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 출범

5월 2일 출범식 및 학술대회
성관 스님 “의례 가치 확산”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가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총재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를 출범하고 왕실 산신제 복원과 학문적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신원사는 5월 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보존회 출범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출범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경과보고, 창립 취지문 낭독, 출범 선언, 발원문 낭독, 축사와 치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말미에는 보존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주지 성관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그간 중악단 산신대재가 단편적인 의례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역사적 정통성과 맥락이 훼손되는 상황도 이어져 왔다”며 “국가 제사로서의 본래 위상에 걸맞은 보존과 전승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왕실 제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지정과 전승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존회를 중심으로 의례 복원과 학술 연구,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중악단 산신대재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존회 총재를 맡은 원경 스님은 치사에서 “출범은 단순한 단체 설립이 아니라 세월 속에 가려진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왕실과 백성의 염원이 담긴 국가 제사터인 중악단의 전통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고 의례 복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살아 있는 전통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사는 향후 보존회를 중심으로 산신대재 의례를 문헌 기반으로 복원하고, 다례와 국악 등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불청 전북지구, 자비의 김치 나눔

5월 3일 취약계층에 전달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는 5월 3일 정읍 대원김치 공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을 비롯해 학림사 주지 제환 스님,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참석했다. 전북지구 소속 회원 40여 명도 팔을 걷어붙이고 김치 담그기에 정성을 다했다.

회원들이 땀 흘려 만든 김치는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급식 식당과 보리수마을 어르신 일자리 센터, 전주시 장애인 부모회 등 지역 불교계 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장석희 전북지구장은 “우리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